



나는 라말라를 보았다

무리드 바르구티 지음 | 구정은 옮김

값 15,000원 | 2014년 8월 출간 | 중동문학/사회

자신의 땅에서 추방당한 팔레스타인 시인이 쓴 귀향의 기록

...

30년 만의 귀향, 며칠간의 방문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팔레스타인

“인생은 단순화할 수 없는 것이다.”

테러와 점령, 분쟁과 혼란의 이미지에 가려져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을 만나다

...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추방을 가장 잘 묘사한 실존적 기록 중의 하나”

- 에드워드 사이드

“잊을 수 없는 기억들, 날 선 통찰력과 추방의 쓰라린 고통이 들어 있는 책”

- 존 버거

1. 나라 아닌 나라의 수도 아닌 수도, 라말라

1999년 이스라엘의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다니엘 바렌보임과 팔레스타인 출신의 석학인 에드워드 사이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화합의 시작이 되리라는 믿음 아래 의기투합해,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출신 젊은이들로 구성된 '서동시집(西東詩集) 오케스트라'를 결성한다. 이 같은 조합 자체가 이미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음에도 독일과 스페인 등지에서 공연을 성사시킨 그들은, 2005년 또 다른 장소에서의 공연을 기획해 실현시켰다. 그곳이 바로 팔레스타인의 라말라였다.

라말라는 요르단 강 서안 지구의 중심 도시이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이른바 '6일 전쟁')이 발발해 이스라엘에 점령되면서 해외에 나가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귀환할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의 왕래는 물론 자치마저 통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 외곽에 이스라엘 정착촌이 건설되면서 도시의 확장을 가로막았다. 1987년 제1차 인티파다(민중봉기)로 표출된 팔레스타인 대중의 저항이 라말라를 진원지로 삼았던 연원은 여기에 있었다. 저항이 이어진 끝에, 예루살렘 북쪽으로 1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 도시에는 현재 자치정부가 수립되어 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독립국가가 출범하면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려 하나, 이스라엘이 서예루살렘에 만족하지 않고 동예루살렘에서도 사실상 점령을 유지하면서 라말라가 '나라 아닌 나라의 수도 아닌 수도' 노릇을 하고 있다.

2. 자신의 땅에서 추방당한 지식인

저자인 무리드 바르구티는 라말라에서 태어나 청소년기를 그곳에서 보냈다. 그러다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유학하던 중 1967년 전쟁을 맞는다. 국경은 막혔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난민 신분이 되어 카이로에서 대학을 나와 시인으로 살던 그는, 문인이자 대학교수인 이집트 여성을 아내로 맞아 이집트에 정착했다. 하지만 1980년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자국 내 팔레스타인 망명 단체 및 운동가들을 추방하면서, 바르구티는 아내와 돌배기 어린 아들을 카이로에 남겨둔 채, 이집트에서마저 쫓겨나 세상을 떠돈다.

그는 추방이란 “당신이 속해 있던 장소에서 당신을 갑자기, 순식간에 획 잡아채 가는 것”이며, “한 번 뿌리 뽑히는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 사람은 영원히 뿌리를 잃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사이드가 표현한 대로, 남들에게나 있을 거라 여겼던 '죽음과도 같은 추방'을 거듭 겪은 그의 문장은 “머물 수 있는 곳과 머물 수 없는 곳, 가도 되는 곳과 가면 안 되는 곳에 관련된 고민들로 귀결”한다. 이 책 『나는 라말라를 보았다』는 세상 어디에도 '나만의 풀뿌리 하나' 심을 곳 없었던 한 지식인의 자기 기록이다.

3. 라말라를 본다는 것

그러던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이집트 무바라크 정부가 팔레스타인 망명자들에게

문호를 열면서 바르구티는 이집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어린 아들은 이미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3년 뒤인 1996년, 고향 라말라로 갈 기회를 얻었다.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국경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이 국경을 ‘개방’해 주었기 때문이다. 30년 만에 요르단 강을 가로지르는 국경의 다리를 건넜다. 그렇게 돌아간 도시는 그에게 무엇이였을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이스라엘에 빼앗겨 시간이 멈춘 도시에서 그는 절망과 희망,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맞본다. 30년 전 기억 속 풍경을 만나는 일이 반가우면서도, 고향의 여전히 낯설고 달갑지 않다. 이 세상 모든 곳이 ‘발전’하는 동안 라말라는 ‘헤브루 국가 주변의 언덕배기 시골’이 되어 버렸다. 점령은 그곳 사람들에게서 상상력과 배움은 물론 모든 기회를 앗아갔다. 바르구티는 미래에 대한 꿈을 이제부터 다시 꾸어야 하는 사람들, ‘고향의 이방인’이 되어 버린 그들과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4. 일상의 언어로 쓴 팔레스타인의 ‘역설’

바르구티의 기념일은 다른 누군가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새롭게 기억된다. 결혼기념일은 팔레스타인 카투니스트 나지 알 알리가 피격된 날로, 자신의 생일은 팔레스타인의 저항 시인 가산 카나파나가 베이루트에서 살해된 날로 의미가 바뀌어 간다. 그러나 이는 현재 4백만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별다른 일이 아니다. 저자에게 일상이란 비극과 희극, 정상과 비정상이 모두 녹아 있는 것이다. 이 책은 팔레스타인인들의 비애와 고통을 담고 있지만 그 현실을 비참하게만 바라보지도, 반대로 저항 문학에서 그러하듯 성스럽게 다루지도 않는다. 이는 추방의 경험이 그 자신 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자각, 그리고 “인생은 단순화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뒷받침된다. 이런 생각을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인생은 단순화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나치게 삶을 단순화하는 건 시인인 나에게도 적이나 다름없다. 전쟁과 이주와 억압과 불확실성이 극단으로 넘나드는 역사적인 순간에도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일상을 찾아간다. 나는 내 작품들을 통해, 전형화할 수 없는 세상을 전형화된 언어로 표현하는 관행에 도전하려고 애썼다.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경이를 발견하려 애썼고, 극단 속에서도 일상을 찾으려 노력했다. 팔레스타인의 역설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폭격을 받았다는 것보다도 한 가족이 만났다는 게 더 큰 뉴스가 되는 현실! 나 역시도 그런 일상과 비일상의 직조에 작가로서 매료되곤 한다. 평범한 식구들이 아침 식탁에서 전쟁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늘 일어나지만 그 자체가 나를 둘러싼 세상에선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다.

그는 이 책에서 침략과 테러, 끝이 보이지 않는 분쟁이 전해 주는 이미지에 가려져 왔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줌으로써, 팔레스타인의 고통을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내는 성취를 일궜다. 이를 인정받아 아랍권 최고의 문학상 중 하나인 ‘나기브 마흐푸즈 문학상’을 수상했고, 영국·미국·스페인을 비롯해 여러 언어권에서 소개되었다.

5. 에드워드 사이드의 추천사(이하 일부 게재)

이 책은 오랜 세월을 해외에서 떠돌다 마침내 1996년 여름에야 요르단 강 서안의 라말라를 방문할 수 있었던 한 팔레스타인 망명자가 남긴 간결하고 매우 시적인 기록이다. 이 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추방’을 가장 실존적으로 보여 준다.

…… 이 책에는 심오한 진실이 담겨 있다. 시처럼 직조된 문장에는 삶에 대한 긍정이 배어 있다. 놀랍게도 바르구티의 글은 비통함이나 비탄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욕하거나 장황하게 비난하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보조를 맞추면서 저 기묘한 평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도부를 공격하지도 않는다. 팔레스타인의 구릉진 풍경에 점처럼 박힌 유대인 정착촌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한편, 이른바 ‘평화 중재자’들에게는 골치 아픈 일이겠지만, 라말라나 데이르 가사나 같은 곳들은 팔레스타인 땅임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불편한 진실을 짚어 낼 뿐이다.

…… ‘귀환’과 ‘재결합’의 한가운데에 상실이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라말라를 보았다』의 의미는 한층 선명해진다. 상실이야말로 그의 시를 이루는 실체이며, 그의 이야기를 낙관으로 채워 주는 존재다. 이렇게 해서 그는 상실에 대한 저항과 항변을 확장해 간다. 그는 말한다. “점령은 공포와 핵미사일과 장벽과 경비병 들로 둘러싸인, 이해하지 못할 머나먼 대상을 사랑해야 하는 세대를 우리에게 남겼다.”라고. 그러므로 그의 시와 산문은 장벽과 경비대를 부수고 그를 ‘자신만의 팔레스타인’으로 이끌어 주는, 귀환의 동반자가 된다. 라말라에서 그는 자신의 팔레스타인을 발견한다.



영국 미술가 뱅크시(Banksy)의 <풍선을 든 소녀>(Balloon Girl). 라말라와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고립시키려는 목적으로 건설된, 이스라엘의 분리 장벽 곳곳에는 이에 항의하는 여러 그래피티 작업이 그려져 있다.

[28~29쪽] 마지막으로 이곳을 떠나던 때에는 내 안경알이 이렇게 두껍지 않았고 머리칼은 완전히 검은 색이었다. 기억의 무게는 가벼웠고, 기억력도 좋았다. 그때 나는 소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 이곳을 마지막으로 건너던 때의 나와 비슷한 나이의 아들을 둔 아버지다. 그때는 멀리 떨어진 나라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 내 나라를 떠나고 있었지만, 지금 나는 그 대학에 다니는 아들을 뒤에 두고 이곳으로 돌아왔다.

[61~62쪽] 앞으로 30년을 몇 번이나 더 보내야 오지 못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까? 나의 귀향, 혹은 다른 누군가의 귀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들의 귀향, 내쫓긴 수백만 명의 귀향이야말로 진정한 귀향이다. 우리의 사자(死者)들이 남의 땅에 묻혀 있다. 살아 있는 우리는 남의 국경에 막혀 있다. 이 세상 다섯 대륙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묘한 경계선이 그어진 그 다리 위에서, 나는 타인의 경계선에 묶여 있는 나의 기억들에 압도당하고 만다.

그러니 새로운 게 뭔가? 이곳의 주인은 여전히 그들이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허가증을 내준다. 그들이 우리의 서류를 검사한다. 그들이 내 정보를 파일로 만든다. 그들이 나더러 기다리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나만의 국경을 갈구하는 것인가? 나는 국경이 싫고, 경계선이 싫고, 통제가 싫다. 몸과 글과 행동과 국가의 경계선들. 나는 팔레스타인을 위한 경계선을 정말로 바라는 것일까? 그 경계선은 다른 경계선보다 과연 나올까?

[92쪽] 점령이 만들어 낸 세대들, 그들에게는 기억해야 할 빛깔과 냄새와 소리를 지닌 장소가 없다. 다른 누구에게보다 그들에게 속한 장소, 누덕누덕 기운 망명지의 기억을 떠나 되돌아갈 장소가 없다. 기억 속에 간직할 유년 시절의 침대, 폭신한 인형을 놓아두고 일어날 침대, 어른이 되면 더는 쓰지 않을 흰 베개를 무기처럼 들고 새된 소리를 내지르며 우당탕 몸싸움을 벌일 침대가 없다. 바로 이것이다. 점령은 공포와 핵미사일과 장벽과 경비병 들로 둘러싸인, 이해하지 못할 머나먼 대상을 사랑해야 하는 세대를 우리에게 남겼다.

[99~101쪽] 나는 내 어린 시절 모습 그대로의 데이르 가사나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나는 세월이 흐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나는 점령하에 있다는 것이 도시와 마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점령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의 존재를 변형시키고 한 다발의 '상징들'로 바꾸어 버린다. 점령자들은 우리가 우리 마을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막는다. 그래서 마을은 점령당한 도시와 마찬가지로 임시적인 공간으로 변해 버린다. 솔직히 얘기해 보자. 이 마을에서 살던 시절 우리는 도시를 갈망하지 않았던가? 작고 답답한 데이르 가사나를 벗어나 라말라·예루살렘·나블루스를 갈망하지 않았던가? 또한 그 도시들이 카이로·다마스쿠스·바그다드·베이루트처럼 커지길 바라지 않았던가? 젊은 세대들은 늘 그렇게 갈망했다.

점령은 우리를 낚은 틀 속에 가두어 버렸다. 점령이 우리에게 저지른 범죄는 바로 그것이다. 점령은 우리에게서 어제라는 가마를 빼앗았을뿐더러 내일을 빚어내는 신비로움마저 박탈해 갔다. 나는 알아브라시가 키우던 커다란 낙타를 다시 보고 싶어서 여기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값진 추억들을 되새기며 데이르 가사나의 과거를 그리워한 적은 있다. 하지만 광장에 쏟아지는 햇살 사이에서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곳을 보았을 때, 나는 마치 주인이 잃어버린 개나 장난감 강아지처럼 이 마을을 멀리 걷어차 더 나은 미래, 다가올 날들을 향해 내몰고 싶었다. “달려가!”

[106쪽] 추방은 당신이 속해 있던 장소에서 당신을 갑자기, 순식간에 휩 잡아채 가는 것이다. 하지만 돌아가는 것은 느리기만 하다. 그리고 당신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소리 없이 그 자리로 돌아가는 당신의 모습이다. 귀환은 언제나 침묵 속에 이뤄지니까. 떠나면 망명지에서 보낸 당신의 세월도 귀환하는 당신을 함께 지켜보고 있다. 그 세월들도 궁금한 것이 많을 게다. 이방인은 자기 자리라고 주장해 왔던 곳에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이며, 그 장소는 돌아온 이방인과 또 무엇을 함께할 것인가?

[223쪽] 떠나면 이국땅에서 늦은 밤 전화벨의 울림은 끊이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나 수화기를 들으면 저편에서 누군가가 머뭇거리며 사랑하는 이의, 친척의, 동료의 죽음을 알려 온다. 그들의 죽음은 고국 땅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고, 로마·아테네·튀니스·키프로스·런던·파리·미국 등 다른 나라나, 이 세상 어딘가에서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 죽음은 시장 바닥의 양상추처럼 값싸게 널려 있다.

[236쪽] 작은 거짓말로 진실을 흐리는 건 쉬운 일이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시작하면 되니까. 라빈이 한 짓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먼저 일어난 일은 가볍게 빠뜨렸다. ‘두 번째’ 일어난 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온 세상이 거꾸로 된다. ‘두 번째’로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붉은 인디언들의 화살이 주범이 되고 백인들의 총은 온전히 희생자로 탈바꿈한다. ‘두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백인들을 향한 흑인들의 분노를 야만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부터 시작하면 간디는 영국을 비극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된다. ‘두 번째’ 이야기부터 꺼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불에 탄 베트남 사람들이 네이팜탄으로 인류애에 상처를 입힌 자들이 되고, 산티아고의 스타디움에서 수천 명을 학살한 피노체트의 총탄 대신 빅토르 하라의 노래들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 버린다. 내 외할머니 움 아타를 범죄자로 만들고 아리엘 샤론을 그 희생양으로 만들고 싶다면 ‘두 번째’부터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책 발간 기념행사

▶ 역자와의 만남, “우리가 보지 못했던 팔레스타인”

: 9월 19일(금) 저녁 7시 반, 후마니타스 책다방

▶ 관련 동영상

: 출판사 북 트레일러 <http://www.youtube.com/watch?v=duBwQRntBAQ>

: 무리드 바르구티 라말라 동행 인터뷰 <http://vimeo.com/85809791>

저·역자 소개

지은이 **무리드 바르구티**(Mourid Barghouti)

1944년 7월, 팔레스타인 라말라 부근의 데이르 가사나에서 태어났다. 이집트 카이로에 유학해 카이로 대학에 다니던 중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면서 고향에 갈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집트 여성과 결혼해 카이로에 정착했으나 1977년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이집트의 팔레스타인계 추방 정책으로 카이로에서도 쫓겨나 유럽과 중동 곳곳을 떠돌았다. 쿠웨이트에서 교사로 일한 적도 있고, 헝가리의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대표부에서 일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두 곳에서 쫓겨난 ‘이중’의 난민’의 삶을 담은 시와 에세이들을 레바논의 『알아다브』와 『마와키프』, 이집트의 『알카티브』와 『알아흐람』 등 아랍권 여러 매체에 발표했다. 『한밤』(*Muntasaf al-Lail*)을 비롯해 12권의 시집과 에세이집 등을 냈다.

1993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오슬로 평화협정으로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일시 귀국이 허용되자, 1996년 추방된 지 30년 만에 고향인 라말라를 방문했다. 이 방문을 소재로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의 아픔을 그린 『나는 라말라를 보았다』(*Ra'aytu Ram Allah*)를 1997년 카이로에서 출간했다. 이 책으로 아랍권 최고의 문학상 중 하나인 ‘나기브 마흐푸즈 문학상’을 수상했다.

옮긴이 **구정은**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 중동,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이 많다.

차례

영어판 추천사	6
다리	13
여기는 라말라	56
데이르 가사나	79
마을 광장	102

시간을 산다는 것	125
아빠 아저씨	142
추방	176
재결합	204
날마다 심판의 날	238
웁긴이 후기	242

후마니타스의 문학 및 관련 도서

- 1 한낮의 어둠 / 아서 콰슬러 지음, 문광훈 옮김
- 2 시간의 목소리 /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지음, 김현균 옮김
- 3 나는 라말라를 보았다 / 무리드 바르구티 지음, 구정은 옮김

팔레스타인 현대사 / 일란 파페 지음, 유강은 옮김